

광주·전남 19만2000명 공익직불금 받는다

농관원 전남지원, 3월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접수 올해 5월 시행...소농에 120만원·ha당 최소 100만원

올해 5월 시행을 앞둔 공익직불제는 0.5ha 미만 소농에는 연 1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일반 농가에는 ha당 100만원 이상씩 직불금을 주되, 면적별로 3개 구간을 나눠 단가를 차등화한다. 농정 당국은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3월31일까지 전체 직불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2월 기준 지역 직불농가는 광주 8900 가구·전남 18만3100 가구 등 총 19만2000가구가 집계됐다. 전국 직불농가는 113만 가구로, 광주·전남 비중은 17% 정도다.

전남지원의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른 혼란

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직불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받는다.

농가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3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변동내역이 없을 경우에도 '변경없음'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역 농업경영체는 25만3000개로, 이들 중 76.1%는 직불대상 농가다. 광주에는 2만7000개·전남은 22만6000개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며 공익직불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은 면적과 관계

없이 연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 각각 3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2ha 이하, 2~6ha, 6~30ha 등 세 구간으로 나누되, 기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이다.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이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다.

전국적인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2조4000억원으로,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지급수준과 단가 인상 예정액을 고려해 직불금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지정됐고, 점검 인력을 지난해 702명에서 올해 956명으로 늘렸다. 부정 수령자를 신고하면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 공익직불금

농업인 보조금 지원 제도로, 기존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돼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4~5월 지자체 신청·등록을 거쳐 11월부터 지급된다.

전남지원은 지난 14일 광주시와 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전남 각 시·군별 협의회를 통해 읍·면·동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접수 일정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4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코로나19 확산에 코스피·코스닥 하락폭 확대 빠른 정책 대응으로 중국 상해종합지수 상승세 개인투자자 잘 아는 종목·자산에 분산투자해야

코로나19 확산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21일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수가 하루사이 100명 이상 늘어나며 200명을 돌파했고 사망자도 발생했다. 대구지역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감염 증세가 추가로 신고되고 있고 3000명 넘게 검사가 진행중이라 추가 확진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수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감염원을 추적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고 코스피지수(-3.60%)와 코스닥지수(-3.04%)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다.

반면 중국정부가 확진자 기준변경을 했지만 후베이성의 신규확진자가 하루 45명까지도 감소하며 중국에 코로나19 확산세는 고점을 지나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주 초반 중국 인민은행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2000억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1년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하는 등 빠른 정책 대응으로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국내증시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정도를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거 전염병이 주식시장에 변동성을 확대시키기는 했지만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했다. 향후 코로나19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위축된 심리와 실물지표부진에 대해 정부는 4월 금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최근 거론되고 있는 추경편성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다만 과거 1분기 추경편성은 IMF 직후인 1998년과 1999년, 그리고 2009년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시기임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향후 경기회복에 대해 우려가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필자는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큰 흐름으로 본다면 미국 대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 미국 대선은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대선 석 달 전까지는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흐름을 보였다. 최근 민주당 경선 흐름이 트럼프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민주당 경선기간동안 트럼프의 감세와 규제완화 영향으로 상반기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한다. 하지만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다시 변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대선전 휴전상태를 보이고 있는 미중무역갈등이 재개되거나 보호무역주의가 재차 기세를 부릴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반기업적인 정책과 재정 관련된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되 하반기부터는 미국시장의 변동성 상승에 대비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필자는 2013년 7월경부터 본 코너에서 시장전망을 말했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투자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투자자에게 많은 전문가들은 분산투자를 권유하는데 단순히 종목을 나누는 분산투자 위험을 줄일 수 없다. 위험을 줄이는 것은 종목분산 보다는 위험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잘 모르는 종목이나 자산에 분산하는 것 보다 평소 잘 알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투자의 귀재 워렌버핏과 조지소로스는 분산투자보다는 본질을 아는 자산에 집중투자 했다. 필자는 고객들에게 절대 3종목이상 투자하지 말 것을 권한다. 평소 잘 아는 종목을 선정하고 저평가된 시기를 기다렸다 매수해야 한다. 주식투자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끝>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지역본부장)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결의 농협 광주본부, 전략회의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도시농협을 기반으로 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한 해 계획을 세웠다. 광주본부는 지난 19일 지역본부에서 지역농협 지도사업 책임자 14명과 '2020년 농가소득 증대 전략회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가소득 5000만원 조기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32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사업 강화 ▲농촌인력증가사업·농촌일손돕기 확대 ▲농업인 행복플러스센터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농협 지도사업은 '영농지도' '생활지도'로 나뉘어 농가 영농·생활 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강형구 본부장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과 국민의 농협 구원을 위해 다양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추진에 조직의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지역 14개 농협 지도사업 책임자와 농협 광주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전략회의를 열고 농가소득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전남 수협 조합장들, 해상풍력 피해 대책 논의

전남지역 수협 18개 조합장들이 오는 25일 '전남 해양공간계획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어업인 피해 대책을 논의한다.

수협 전남지역본부는 이날 영광군수협에서 지역수협 조합장과 간담회를 열고 서남권 해역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해양생태계 훼손·어장 축소 대응 방안을 나누기로 했다. 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도는 일자리 대책 '블루 이코노미' 사업의 하나로 신안·영광 등 서남권 해역에 약 8.2GW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전체

목표 발전량의 68%에 달한다.

수협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명분 삼아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해상풍력발전기 한 기를 바다에 깔았을 때 주변 약 1km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개발 때 조업 구역 축소는 물론 해양생태계 훼손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전남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이해관계자 43명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와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

나주 50ha에 무인자동화 농업단지 조성

농어촌공사-전남대 업무협약

나주시 반남면 50ha 부지에 무인자동화 농업단지가 2023년까지 조성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9일 전남도 농업기술원, 전남대 무인자동화연구센터와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나주시 반남면 일원 전남도 중자관리소 부지 50ha에 무인자동화 30ha·밭 20ha를 조성한다. 국비 200억·지방비 200억 등 400억원의 예산이 들며, 올

해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 농업단지에는 무인 육묘장, 무인자동화 농기계, 첨단농기계종합관리센터 등이 들어선다.

농어촌공사는 설계 및 시범단지 조성을 맡고, 전남대는 통합제어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전남도는 시범단지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인식 공사 사장은 "스마트 농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농촌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정 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